

법회와 문화콘텐츠가 만나면?

불자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다문화시대에는 법회도 이에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종)이 1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다문화시대, 법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포교정책연구회에서 다문화시대에는 다양한 법회 형태와 이웃종교 사례 등이 소개돼 눈길을 끈다.

'다문화시대, 법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발표한 김성철 교수(동국대)는 "양질의 영상물을 누구나 제작할 수 있는 요즘, 수행용 영상물을 활용할 경우 법회 효과가 무척 클 것"이라며 "블로그플래시를 활용하는 '디지털 법회'는 우리 불교는 물론이고 세계불교의 미래를 개척하는 선봉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불교수행과 포교를 위해 만들어진 플래시영상물을 법당에 비치해 놓고, 법회 때마다 적절한 블로그플래시 영상물을 상영한 후 그와 관련된 법문을 하거나, <반야심경>·예불문 봉독할 때 뜻풀이가 담긴 플래시영상물을 상영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로 나선 덕문 스님(왕용화사 주지)은 "용화사에서는 테마식 교양법회로 월요일은 경전 스테디, 화요일은 찬불가 배우기, 수요일은 요가·오카리나 배우기, 토요일은 복지판 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대인의 생활 패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법회를 실시함으로써 가족 단위의 참여도가 높아졌다"고 사례를 밝혔다.

대만의 음악법회 사례를 발표한 윤소희 동국대 강사는 "대만의 연필류 법회와 북치며 흥겹게 노래하는 구산인(鼓山音) 노래는 열흘 혹은

조계종 포교원 '다문화시대 법회' 주제 연찬회 디지털·음악·미술·요가 등 다양한 형태 모색

한 달간 지속되는 긴 법회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기도 하고, 신명을 돋우기도 한다"며 "한국의 불교음악은 어렵고 고답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하며, 노래의 뜻이나 의식도 내용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의 불교음악을 의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문화법회를 오래전부터

실시해 포교효과를 특별히 누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2006년 2월부터 한 달에 한 번 LMB 상어즈와 함께 음악법회를 열고 있는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장)은 "찬불가를 통해 불교를 좀 더 가깝게 느끼게 하자는 뜻에서 음악법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한다. 비로자나국제선원은 매주 토요일 불교와 영어를 함께 가르치는 '어린

이 영어답마스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자우 스님은 "새로운 시도에는 지속적인 연구와 적용, 시행착오와 개선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대중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나아갈 때 부처님의 대기법처럼, 대중의 근기에 맞게 가르침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 1월부터 매월 셋째주 일요일마다 음악법회를 열고 있는 안산 천

수사 주지 지허 스님도 문화법회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다.

지허 스님은 "처음 음악법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신성한 법당에서 기 타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해 감지않은 우려의 시선이 많았다"며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법회 인원도 늘어나고 신도들의 호응도가 높아 내년에든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음악법회라고 1~2시간동안 노래만 부른다면 그것은 법회가 아니라 단순한 공연에 지나지 않다"며 "초청 가수법사들이 가사에 담긴 의미와 불교이해를 함께 해주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고 그동안의 경험을 덧붙여 설명했다.

군법당인 원주 범종사도 최근들어 문화법회를 활성화시켜 법당을 찾은 신도들의 발걸음이 늘었다. 요가와 명상, 노래교실 등 신도 눈높이에 맞는 차별화된 문화포교 전략으로 재미를 특별히 보고 있다.

범주 스님(선문화예술원장)이 주지로 있는 달마선원도 비정기적이지만 달마도를 주제로 한 법회를 실시하고 있다. 범주 스님이 달마도 시연과 그림 지도를 하며 선화 포교를 하고 있어 전국 각지에서 관심 있는 불자들이 많이 찾아온다.

이런 현상에 대해 조계종 포교연구실 주임은 "최근 법회 참가자들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음악·영상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입체적인 법회프로그램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연찬회 등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문화포교 프로그램을 모색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포교 전략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일·여수령 기자



'세계일화'로 피어나소서

한국불교 세계화의 선구자인 숭산당 행원 대종사(1927~2004)의 열반 3주기를 맞아 11월 20~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 전시장에서 기념전이 열렸다. 숭산 스님의 외국인 제자들이 직접 준비한 전시에서는 숭산 스님의 일생을 담은 사진과 세계 각국의 의 언어로 출간된 스님의 법문집 등이 선보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숭산 스님의 제자인 대종 스님(대종산 국제선원 무상사 조실)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반쪽 토론회' 그친 대선후보 초청 토론

이명박·이회창 후보 불참

제17대 대통령 후보들의 불교 관련 정책을 짚어보기 위해 11월 21일 열린 '2007 불교계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가 후보들의 급작스런 불참 통보로 '반쪽 토론회'로 진행됐다.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토론회 당일 토론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행사 시작 3

시간 전야에 불참을 최종 통보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입장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오전까지도 성사 여부를 두고 흥선을 빚었던 토론회는 결국 대통령후보인 정동영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참석한 정동영, 문국현 후보 역시 불교계에 제시한 정책과제 대부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만 밝혔

을 뿐 눈에 띄는 불교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패널들의 질문에도 구체적인 실현 방안보다는 원칙만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2007 불교계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준비위원회는 토론회 직후 성명서를 발표해 불참한 두 후보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여수령 기자 <관련기사 7면>

조계사 부주지에 토진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11월 23일 조계사 부주지에 토진 스님을 임명하고 전 주지 원담 스님은 총무원장 정책 특보로 임명했다. 이로써 조계사 주지 인사 관련 신도회와 총무원 간의 대립국면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계사 주지 인사 철학을 요구하며 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단식집회를 하던 노현 스님은 총무원의 조치에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령 기자

고품질 장수 발효식품 100%천연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꽃이 오르지 않고 향의 약성을 섭취하는
산사 참울조청
 1.2Kg - 현 시세
산사 약도라지 조청
 1.2Kg - 현 시세
 불자들에게 위한 정성 **산사조청원**
 주문처 054-372-3166
 입금계좌 : 농협 727071-52-056761(여곡주·현소희)

원순 스님 '열강' 동영상으로
원각경 특강 CD 제작 100부 한정 보급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3주년을 맞아 불자 여러분의 공부를 돕고자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CD'를 제작 100부 한정 보급합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 문하로 출가해 제방 선원에서 수선(修禪)하고 제경전(諸經典)을 연찬한 원순 스님이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에서 10일간 강의 한 내용을 그대로 생생한 동영상 CD에 담았습니다. 문수 보현 보안 미륵 보살 등 12보살이 열어 주는 진리의 세계, 그 환한 세상으로 가는 길, 동영상 CD로 만나는 원순 스님의 '열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분량: 총 10장 동영상 CD 20매
 ◆강의: 2007년 9월 16~27일(10일)
 ◆장소: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
 ◆제작: 현대불교영상사업단
 ◆가격: 19만(교재 포함)
 ◆교재: 합하독통 주해 원순 스님 풀이 <한글원각경(법공양 권, 2만5000원)
 ◆구입문의: 02-2004-8200, 2004-8279.
 ◆입금계좌: 국민은행 038-25-0008-365(여곡주 에이치비뱅크)
***100부 한정 보급,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주제: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접수처: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마감: 2007년 12월 17일
 ●당선차 발표: 2008년 1월 1일자 본지 및 다뉴스
 ●문의전화: (02)2004-8282
 ●이메일 접수: jygang@buddhapia.com
 ●시상 부문
 -대상(유마상)/우수상(본사 사장상)/특별상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민사·형사·가사·행정
 서안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1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1010-7504-4521 (강령회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신 변호사)
 경기도 안성시 동안구 관동동 1597 한일빌딩 206호 (한문역 도보 5분)

성불조각원 www.sungbul.or.kr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사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 전시장: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033)263-1102 · 017-379-0590 / 경남지사 011-588-8317

성불조각원이 하는 일

- (목) 부처님 조성, 목명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옹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패,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드립니다.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홍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은양 수암사 지장 목명화